



현장에 선 여성연구자

■ 푸노의 향기, 푸노의 속살

이 영 미

페루 사람들 속으로

한국에서 인류학 석사과정을 마치기 전부터 페루라는 나라는 내게 동경의 대상이었고(어떤 동기로 그렇게 동경하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페루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페루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을 찾았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한국 인류학계에서 페루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페루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학풍을 유지하고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 그 도서관에서 나는 일본인 인류학자로는 맨 처음 페루 땅을 밟은 이즈미 세이치(泉 靖一, 1915~1970)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1940년대 초반 여객선의 화물칸에서 약 한 달 동안 여행한 끝에 이즈미 세이치는 페루에 도착했고, 페루 연구의 초석을 다졌



티티카카 호 인근에 위치한 푸노(Puno)의 자연조건은 척박하지만 사람들의 밝은 웃음은 고산지대 특유의 햇살보다 더 맑고 밝다.

다. 페루에 가기 전에 이미 나이는 40대 후반이었고, 동경대 인류학과 교수였다. 안락한 교수의 삶을 접고 새로운 세계를 선택한 이즈미 세이치의 학문적인 열정을 국립민족학박물관의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비록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이즈미 세이치의 페루에 대한 학문적 도전과 열정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또한 세대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관심분야에서 페루를 연구하는 일본인 인류학자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 속에서 인류학(페루 인류학)을 공부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굳히고,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페루로 향했다.

수도 리마의 가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하던 2003년,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과 오사카대학교에서 관련 국제학회가 개최되었다. 나는 원주민의 사회운동에 관한 발표문을 들고 다시 오사카를 찾았으며, 예전에 만난 일본인 학자들과 페루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기쁘고 행복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현지연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 마누엘 마르살(Manuel Marzal, 1931~2005)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마르살 선생님은 쿠스코(Cusco)를 적극 추천하였으나, 나는 푸노(Puno)가 종족정체성(‘다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이라는 주제에 좀 더 적합한 연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연구지를 결정하기 전에 두 도시를 모두 여행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 12월 약 3주 동안 푸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한 후에, 이 지역을 나의 ‘인류학적 현장’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지 선택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푸노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¹⁾ 함께 볼리비아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 의식이 정치적 의미의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서 종족정체성이라는 주제와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푸노의 향기

푸노는 페루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약 4,000미터에 있는 고산도시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지역이며, 수도인 리마로부터 육

1) 푸노는 잉카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칸델라리아(Virgen Candelaria) 축제가 태동하였다.

로를 이용하면 약 22시간이 소요되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접 도시 훌리아카(Juliaca)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푸노의 대표적인 언어는 아이마라(Aymara)어이고, 지역에 따라 케추아(Quechua)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알파카를 기르는 아이마라 여인. 알파카는 털과 고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축이다. 특히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안데스 고유의 음식이다.

본격적인 현지연구는 2005년 1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푸노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구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점은 고지에 대한 신체 적응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높이 올랐던 곳은 지리산 천왕봉이었다. 푸노는 천왕봉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에 고산병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푸노에 도착해서 경험한 고산병 증상은 심한 편두통과 함께 얼굴 붓고 코피를 쏟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얼굴이 부어 외출이 불가능하였다.

가톨릭대학교의 인류학과 교수들은 나(외국인 여성)의 현지연구에 대해 많은 걱정과 함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외국인이 그것도 여성이 푸노까지 내려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현지인들은 측은지심으로 나를 대해주었고, 또 일 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푸노를 방문하면서 현지인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다.

나는 현지연구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내 연구대상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웠다. 즉, 현지인들은 나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체이자 동시에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현지인들과 나 사이에서 인간적인 교집합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이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일상을 현지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마도 현지인들이 나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였기에 푸노에서 현지연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처음에는 ‘푸노의 향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비좁은 버스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참으면서 작은 마을을 여행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제대로 씻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인사하는 일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조금씩, 내가 처음에는 싫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특히, 고지에서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비슷한 몸 냄새를 발산하면서 서로에게 점점 더 익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매달 맞이하는 생리기간 동안에 나는 처음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했다. 정말로 후회했다. 그러면서 터득한 몇 가지 생활의 지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양의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비법을 배운 것, 아침에 세수하지 않고도 따스한 햇볕에 등을 맡긴 채 말린 소똥에 감자를 구워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것, 아무런 문제없이 손가락을 이용하여 알파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등이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공유를 통해 현지인들은 한국여성인 나를 조금씩 자기들의 범주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도 강력한 유혹이고, 마술이었다.

푸노 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마라 인은 페루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아이마라 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노에서



건물 옥상에 “일라베는 위대한 아이마라 ‘국가’의 수도”(Ilave es la capital de la Gran Nación Aymara)는 글씨가 선명하다.

약 1시간 정도 여행하여 일라베(Ilave)라는 소도시에 당도하면, “일라베는 위대한 아이마라 ‘국가’의 수도”라는 커다란 글씨를 발견할 수 있다. 아이마라들에게 국가(nación)는 더 이상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며, 페루에서 태어나는 것과 볼리비아에서 태어나는 것의 차이는 적어도 아이마라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마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푸노에서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Copacabana)를 통해 라파스(La Paz), 오루로(Oruro), 그리고 포토시(Potosí)를 여행하였다.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아이마라들 역시 페루에 살고 있는 아이마라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그들은 아이마라 문화 속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볼리비아에서 ‘다국민국가 Multinación-Estado’라는 개념은 더욱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푸노에서 연구지인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밀수품 소지여부를

검사하는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푸노에서 경험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아이마라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교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내가 타고 있던 작은 버스에서 검사관들은 어떤 아이마라 아주머니를 강제로 내리게 했다. 그 아주머니는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친척이 선물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이것을 밀수품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경찰관의 제재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가 소지한 볼리비아산 물건을 친척에게 받은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아이마라인들 사이의 일상적인 교환 행위이지, 경찰관이 생각하는 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는 푸노에 존재하는 대규모 밀수집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마라인들 사이에서 생산되고 있는 교환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개념은 문화적인 코드에 의해 아이마라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다)이 아이마라 아주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순식간에 연합하여 경찰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 정부를 상징하는 경찰관에 대한 푸노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푸노라는 공간 내에서 아이마라 문화, 그리고 문화적 의미의



푸노 지역의 전통적인 치마 포예라 (Pollera). 칸델라리아 축제의 한 장면.

국가 관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 가는 푸노의 소중한 친구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내가 점점 더 ‘사람의 모습’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까지 페루에서 7년 정도 지낸 나는 이제서야 푸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초 공사를 끝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현지연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삶의 면면들을 함께 느끼고 맛보기 위해 나는 푸노에서 살기로 선택했다. 아니,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왜냐하면, 푸노에서는 학문적 열정을 넘어선 모종의 광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미세하게 녹아있는, 그래서 놓치기 쉬운 섬세한 일상의 모습에 다가서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몇 겹의 포예라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푸노의 속살을 진심으로 보고 싶다.□